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안희관 요셉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이민찬 비오

2구역장: 김산영 올리아 3구역장: 권혜림 세레나 청년구역장: 이동애 디오니시아 전례위원장: 엄기용 안토니오

여성위원장: 구희선 스텔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변의용 베네딕토 외교위원장: 곽형선 안셀모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안전 거리 유지(방역에 신경쓰기)**
- **10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목주 기도 자주 바치기**

(녹) 연중 제28주일

(2022. 10. 09.)

*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현세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샘이시니, 육신의 건강만을 찾지 맙시다. 이 거룩한 날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와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열왕기 하권):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돌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 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 제2독서(티모테오 2서): 사랑하는 그대여, 8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복음(루카 17,5-1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미사 전례

본기도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피 주시어, 가난하고 병든 이들,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모든 나라에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어, 평화를 위하여 대화하고 힘을 모으며, 미래 세대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데 힘쓰게 하소서.
3.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인간 생명인 배아가 불임과 난임의 해결 방법으로 쓰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더없이 소중함을 널리 전하여 생명 문화 건설에 앞장서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주님의 진리를 나누고 가르침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엄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 당: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봉 헌: 332 봉헌 / 514 주여 대령했나이다
영성체: 152 오 지극한 신비여 / 169 사랑의 성사
파 견: 4 찬양하라

공지 사항

- ♣ 밀라노 한국 순교자성당 홈페이지 오픈
- 주소 : www.cmilano.org
신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본당 25년사 자료 수집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고자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본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올리실 수 있습니다.
 - ♣ 한인공동체 가을 체육대회
- 일시 : 22년 10월 15일(토), 10:00~18:00
- 장소 : Centro Sportivo Savorelli (작년과 동일)
Piazza Caduti del Lavoro 5, Milano
- 내용 : <개회식>, 10:30
1부, 다 함께 뛰며 즐기는 운동/퀴즈 (중식), 12:30~14:00
2부, 다 함께 듣는 K-POP
3부, 다 함께 누리는 시상 및 경품추천
 - ♣ 회의/모임
- 사목회의 : 10월 9일(금일) 미사 후 Sala Giochi
 - ♣ 봉사자
- | | 오늘(9일) | 다음 주일(16일) |
|--------|-----------|------------|
| 제1독서 | 이민찬 비오 | 엄기용 안토니오 |
| 제2독서 | 윤지영 베레나 | 장세란 세실리아 |
| 복사 | 박동현 요한보스코 | 박시윤 이냐시오 |
| 복사 | 이준서 마르티노 | 엄소연 라파엘라 |
| 계단·화장실 | 이민찬 비오 | 엄기용 안토니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45.5 • 교무금 € 180.-